

한국 근현대 미술 기록화 방안 :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A Documentation Model of Korean Modern Art : Focusing on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설문원(Moon-won Seol)

E-mail: seol@pusan.ac.kr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4.10.16
최초심사 2024.10.23
게재확정 2024.11.19

ORCID

Moon-won Seol
https://orcid.org/0000-0001-8696-8351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1981)라는 관설 미술공모전 기록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모전, 작품, 작가와 같은 '맥락'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기록화 방법론을 적용해야 구축된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활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조선미전과 국전의 의미와 기록화의 의미와 필요성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둘째, 공모전 관련 일차 자료를 중심으로 잠재적 소장처를 조사하고 소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토대 구축의 관점에서 관설 공모전 국전 기록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록화 모형의 설계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후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CDWA와 VRA Core의 데이터모형, 그리고 CDWA 및 어휘통제를 구현한 사례로 게티 어휘집(Getty Vocabularies)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관설 공모전 기록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동적이고 확장적이며, 지속가능한 기록화를 지향한다. 양대 미술공모전에 대한 기록화 전략이 실행되어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담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내용의 일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 심포지엄(2024.8.10)에서 발표한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을 수정한 것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ocumentation model for the two official, state-sponsored art competitions: the Joseon Art Exhibition (1922-1944) and the National Art Exhibition (1949-1981). The documentation methodology that focuses on "contexts" such as art competitions, works, and artists should be applied, as this approach enhances both the clarity and utility of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comprises three primary components.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competitions i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while establishing the necessity of their documentation. Second, it investigates potential repositories and analyzes the status of primary sources related to these competitions. Third, this study proposes a documentation model for the two official competi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chives. This model is characterized by supporting dynamic, scalable, and sustainable documentation. It is hoped that the documentation model for the two official art competitions will be implemented, laying the foundation for comprehensive archives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eywords: 조선미술전람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기록화 전략,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게티 어휘집
Joseon Art Exhibition, National Art Exhibition, Documentation strategy, Korean modern Art Archives, Getty Vocabularies

1. 머리말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서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미전(1922-1944, 23회),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시작되어 1981년 막을 내린 국전(1949-1981, 30회)은 척박한 문화 환경에서 개최된 대규모 ‘관설(官設)’ 공모전으로, 6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성격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미전과 국전은 미술사 외에 일제강점기의 문화통치와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문화예술정책 등 사회문화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조선미전은 일본의 강점으로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강등된 식민지 조선을 직접 통치하던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제국미술전람회를 모델로 1922년부터 개최하였다(홍선표, 2024). 이는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통치의 한 방편이었으며, 조선미전이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보도된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미전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일제의 문화통치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목수현, 2011). 근대 독립 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문화 예술 제도를 표방하며 해방 이후 설립된 국전은 미술가들의 거의 유일한 등용문이자 일반인들이 미술을 접할 수 있었던 주 무대로서 대중의 문화 향유와 교육의 장이었다(권영진, 2018). 따라서 공모전 관련 자료는 비단 미술사 연구뿐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사회, 문화, 정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대 관설 미술공모전 자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선미전과 국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록, 도판, 신문 기사 등 많은 일차 자료가 인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조선미전과 국전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먼저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이 필요하다. 기록화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 인물, 사건, 주제 등을 분석한 후 이러한 대상을 재현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직접 수집뿐 아니라 연계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기록화 전략은 공모전 작품 및 작가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맥락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조선미전과 국전에 출품된 작품과 작가는 60여 년에 걸친 한국 미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원이기 때문에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양대 공모전에 대한 기록화를 기반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담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확장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록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조선미전과 국전이라는 관설 미술공모전 자료의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기록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조선미전과 국전의 의미와 기록화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공모전, 작품, 작가와 같은 ‘맥락’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구축하는 기록화 방법론을 적용하면 구축된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활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둘째, 양대 공모전 관련 일차 자료를 중심으로 소장처 및 소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모전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록, 팸플릿 등의 소책자, 행정기록, 관련 신문 기사를 일차 자료의 범주로 규정하였다. 셋째, 문화예술 분야 메타데이터 표준 및 구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토대 구축의 관점에서 관설 공모전 국전 기록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CDWA와 VRA Core 메타데이터 표준의 데이터모형을 통해 미술아카이브에 필요한 기록화 대상을 살펴보고, CDWA 구현 사례로 게티 어휘집(Getty Vocabularies)을 분석함으로써 개체별 기술과 연계, 어휘통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모형의 제안이 아니라 동적인 기록화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밝힌다.

2. 관설 공모전 기록화의 의미와 필요성

2.1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조선미전과 국전의 의미

먼저 기록화 대상으로 조선미전과 국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미전과 국전은 관 주도의 대규모 미술 공모전이다. 조선미전은 「조선미술전람회규정」(조선총독부 고시 제3호, 1922.1.12.)에 따라 1922년부터 1944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개최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문화통치의 일환이었다. 둘째,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미술가들의 작품활동 신장을 위한 행사였다. 실제로 총 23회까지 진행된 조선미전 출품 작가 중 60% 이상이 조선 거주 일본인이었다. 셋째, 일본미술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이중희, 2005).

이렇게 추진된 조선미전은 연구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봉건시기 미술에서 근대 미술로 변화하는 시기에 개최된 전람회로서 한국 근대 미술의 태동을 확인할 수 있다(이중희, 2005). 둘째, 한국과 일본 작가가 공동으로 참가한 복합 미술 발표장으로서 양국의 전통과 미의식의 혼용과 교차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다(이중희, 2005). 셋째, 일제강점기 문화정책의 수립과 그 전과, 수용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며(목수현, 2011), 金惠信(2005) 등 여러 연구가 조선미전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미전은 근대 한국 미술사, 그리고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국전은 1949년 9월 문교부 고시 제1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에 따라 창설되었는데, 정부수립 이후 근대 독립 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문화예술 제도라는 점을 표방하였다. 제1회 국전은 194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복궁미술관에서 개최되었는데 한성일보 11월 19일 자 2면 “대한미술의 정화(精華)-제1회 미전 입선작품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국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알 수 있다.

“문화민족으로서의 빛나는 사천년의 뚜렷한 력사는 그간 일제의 억눌림을 받아 그 본년의 광채를 이룩하지 못한 채 비분과 억눌림에 개탄하여 오든 중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보게됨에 뛰는 감격의 고통은 드디어 대한민국제일회 미술전람회에 총집중되어 세계 어느나라에도 못지 않는 당당한 미술의 전당을 이루고 마렸다.”(한성일보, 1949. 11. 19.)

이후 매년 개최되던 국전은 1950년~1952년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재개되었으나 1981년 제30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전은 격변기 한국 미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작품 발표의 장이자 등용문이었다. 30여 년간 한국 미술을 발전시키고 정착시켰으며 연인원 4만 4천 명에 달하는 미술인이 참여했다. 신인 작가들이 미술가로 등단할 수 있는 유일한 등용문이었고, 기성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주된 무대였다. 또한 일반인들이 미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 관람과 교육의 장이었다(권영진, 2018). 국전은 “일제강점기 조선미전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답습”했고, “국가가 예술영역에 직접 관여하여 관학풍 미술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막을 내렸지만 정부수립 이후 1981년까지 민족미술의 수립과 현대 미술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는 주 무대로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전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중요하다(권영진, 2018).

조선미전과 국전의 출품작과 참여 작가, 공모 부문과 심사 내용, 수상 내역과 같은 기본정보, 그리고 공모전에 대한 보도와 비평 등 사회적 수용 양태에 대한 자료를 통해 60여 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자취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대 관전(官展)의 기록과 자료는 미술사 및 문화정책, 식민지 문화 연구에 긴요할 수밖에 없다.

2.2 기록으로서 공모전 자료의 가치

공모전 자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공모전 자료가 매우 복잡적이어서, 자료와 공모전, 작가, 작품 등 다양한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모전 자료의 관리에서는 자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분류·목록보다는 맥락 중심의 방법론인 기록관리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모전 자료의 맥락으로서 작품, 작가, 공모전 등에 관한 정보를 자료 자체에 대한 정보와 연결하여 제공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공모전 자료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증거, 정보, 기억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 및 제도, 그리고 관설 공모전이라는 이벤트를 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공모전 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다룬 관보, 행정문서 등은 당시 문화예술과 미술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적 증거다. 이러한 증거 가치를 보호하려면 정책이나 이벤트 맥락과 연결하여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설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미술작품의 감정을 지원하는 진본 증거이다. 도록이나 도판 정보는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된다.¹⁾ 미술계에서 ‘프로비넌스(provenance)’는 작가의 작업실에서 현재 소장자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이력을 포괄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기록학에서의 ‘출처’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도판이나 도록 정보는 ‘프로비넌스’의 일부로서 작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국 근현대미술사 및 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정보자원이다. 공모 부문, 수상작, 작가, 전시 정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태동과 흐름을 연구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또한 관련 언론 기사, 비평 등을 통해 관 주도 미술의 확산, 작품, 작가에 대한 미술계 및 대중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미술의 전통과 미술 활동에 대한 기억자원이다. 공모전 기록은 단순히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넘어 한국 근현대 미술작가와 이들의 작품활동에 대한 기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사실 기반의 기억자원이며, 한국 미술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역사성과 맥락에 충실한 자료 수집과 조직,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공모전의 역사 속에서 생산된 자료가 다양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 개체별 서비스를 넘어 맥락과 역사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2.3 관설 공모전 기록화의 필요성

2.3.1 공모전 자체 정보의 부재 혹은 망실

공모전에 관한 중심 자료는 도록인데, 도록이 남아있지 않은 전람회도 있다. 조선미전의 경우 20회부터 23회까지 도록이 없으며, 국전은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초기 5회 도록이 발간되지 않았다. 도록이 없는 전람회의 경우 수상 작품과 작가, 심사위원과 심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자료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팸플릿과 같은 공모전 내부 자료뿐 아니라 신문 기사, 때로 관보나 행정문서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 안에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불확실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공모전 정보의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도록 외의 정보원을 활용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술을 활용하여 망실된 정보의 조각을 맞춰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을 언제까지 늦출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록이 남아있더라도 작품과 작가를 찾으려면 책자 형태의 도록을 찾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1) 미술품 감정은 안목 감정, 재료분석과 연대 측정, 프로비넌스 분석, 작업실 사진 등 각종 기록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송향선, 2022).

있다. 공모전 회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작품과 작가, 심사위원 등을 쉽게 확인하고, 또한 회차와 관계없이 작품이나 작가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공모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957년 제6회부터 발간된 국전 도록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화질이 좋지 못한 흑백 도판을 싣고 있어, 원작이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의 면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록 외의 작품 이미지를 추가로 수집할 필요도 있다.

2.3.2 공모전 관련 외부 자료 활용의 어려움

조선미전이나 국전은 모두 국가 주도의 대규모 문화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신문·잡지 기사가 생산되었다. 한국 근현대미술사 및 문화사 연구를 위해서는 공모전 관련 신문 기사와 같은 일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목수현(2011)은 “조선미전은 1919년 삼일 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한 방편으로 기획된 것으로 조선미전이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보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미전의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일제의 문화통치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밝히며 신문 기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신문·잡지 기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찾아 활용하기는 불편하다. 한국미술연구소는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을 편찬하면서 “전시도록이 유일한 기초자료집”이고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에 수록된 자료들은 연구자마다 일일이 섭렵하여 발췌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편찬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한국미술연구소, 1999, 4). 따라서 공모전 도록뿐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신문 기사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관련 연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자료집과 같은 책자 형태가 아니라 검색과 브라우징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수집된 자료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3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의 기초 컬렉션 구축 필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아우르는 공식 아카이브는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양대 관전은 60여 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태동과 발전기에 개최된 대표적인 대규모 전람회로서 여기에 참여한 작가 규모는 수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 토대가 된다. 조선미전과 국전의 수상 작품과 작가에 대해 충실하고 체계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현대 한국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모전 이후 시기에 발표된 작품과 작가, 해외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면 대표적인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대 관전의 기록화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관설 공모전 기록화 대상과 잔존 자료 분석

3.1 기록화 대상 분석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기록학자 리처드 콕스(Cox)와 헬렌 사무엘스(Samuels) 등이 주창한 ‘기록화 전략’에서 기록화는 특정 사안이나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후 기록의 생산이나 연계도 포함하는 전략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무형유산의 기록화 사업에서 기록화는 “기·예능의 전 실연 과정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기록물에 담는 것.” 다시 말해 즉 무형문화재를 재현하고 전승할 수 있는 정보를 영상녹화, 사진 촬영, 도서 제작 등의 형식으로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석훈, 2024, 69). 공모전 기록화에서는 대상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체계적 구축, 그리고 관련 기록의 수집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록화 전략의 첫 번째 작업은 기록화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다. 관설 공모전 기록화의 대상은 물론 공모전 자체이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과 작가는 중점적인 기록화 대상에 포함된다. 기록화 대상인 공모전, 작가, 작품은 수집할 기록의 '맥락'에 해당하며 먼저 맥락 즉 기록화 대상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회차별 공모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지속적 기록화, 그리고 관련 자료와 기록의 수집 및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모전이라는 기록화 대상 분석을 위하여 수집할 일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모전 : 조선미전 및 국전에 대한 배경정보, 연혁, 근거 법규
- 회차별 공모전 정보
 - 공모전의 개최 배경과 특징 (도록 서문 활용)
 - 출품작가 : 운영위원, 수상작가, 초대작가, 추천작가 등의 명단
 - 출품작품 : 부문, 재료, 크기 등
 - 공모부문 : 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각, 건축 등
 - 심사위원 : 부문별 심사위원 명단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려면 먼저 관련 문헌과 일차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이때 조사할 대표적이면서 권위 있는 정보원은 도록이다. 도록에서 공모 부문 및 수상 내역, 출품작, 작가, 심사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록에 수록된 도판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도판 없이는 어떤 작품이 출품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도록이 없는 회차의 공모전인 경우 도록 외의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도록에 수록된 작품과 작가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가령 제13회 조선미전 도록에는 부문별 수상 내역이 목차에 기재되어 있고, 작품의 흑백 도판, 작품명(‘晚春’), 작가명(‘白濶文’)과 호, 지명(‘京城’)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 외에 작품의 크기나 재료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없다. 국전 도록에서 제공하는 작품정보도 제한적인데, 수상 내역, 부문, 작품명, 작가명이 전부다(그림 2 참조). 예를 들어 제20회 도록을 보면, “운영위원, <정물>, 도상봉”이라는 정보와 이에 대한 영문 표기가 컬러 도판과 함께 실려있다(문화공보부, 1977, 95). 도록이나 전시에 포함된 작품에는 수상작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초대작가, 추천작가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도 많다.



<그림 1> 조선미전 도록의 도판 사례
(朝鮮總督府, 1934, 1)



<그림 2> 국전 도록의 도판 사례
(문화공보부, 1977, 95)

이렇게 도록에 수록된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정보가 소략하고, 아예 도록이 없는 회차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면 별도의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역대 국전 수상작품 도록(국립현대미술관 편, 1977; 고려서적주식회사 편, 1986; 1988), 역대 국전 작가 총람(전영석 편저, 1982; 김영석, 1983; 김영관 편저, 1992; 현대미화사 편, n.d.), 회고전 관련 자료(예술의 전당 편, 1990; 울산문화예술회관 편, 2015) 등의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공모전 당시 생산된 도록과 소책자, 그리고 이후 발간된 참고 자료를 토대로 공모 부문, 작품, 작가, 심사위원 등 공모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한편 공모전 개최의 배경이나 성격, 회차별 공모 부문의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을 통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KCI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논문들, 그리고 東京文化財研究所(2006; 2009), 金惠信(2005), 한국근대미술연구소(1981), 예술의 전당(2007), 조은정(2009), 안현정(2012) 등과 같은 단행본도 참조해야 한다. 한편 여러 논문에 인용된 수많은 일본 학술지 논문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잠재적 소장처와 자료의 간존 양상

도록이나 문헌분석을 통해 기록화 대상에 대한 기초 정보를 구축한 후, 수집할 자료의 유형과 출처를 검토해야 한다. 수집해야 할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선미전과 국전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도록, 팸플릿이나 브로셔, 입장권, 전시 사진, 행정기록물 등이다. 관 주도 공모전이었으므로 관련 법규나 관보, 회의록 등을 포함한 행정기록물이 존재할 것이다. 둘째, 공모전과 관련하여 생산된 언론 기사들이다. 조선미전이나 국전은 모두 국가 주도의 대규모 문화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신문-잡지 기사가 생산되었는데, KCI를 통해 확인한 수많은 관련 연구를 살펴볼 때 도록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된 일차 자료는 신문 기사였다. 이러한 공모전 기획 및 준비, 전시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있어야 공모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생산자 및 잠재적 소장처는 국립현대미술관, 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소관 미술관 시설에서 국전을 개최한 바 있고, 미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기관이므로 기관 기록물 및 수집기록물 속에 조선미전과 국전 자료를 소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선미전이나 국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행정문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가 남기고 간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조선미전 관련 기록도 소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전은 정부 부처가 주관한 국가 행사였으므로 관련 행정기록을 생산하고 그중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교부나 문화공보부를 승계한 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혹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기록을 보관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출판물은 물론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자료를 납본받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도 양대 관전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이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소장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의 장서를 물려받은 서울대학교 도서관도 조선미전 자료의 잠재적 소장처에 해당한다. 이밖에 김달진미술아카이브 등 민간 아카이브나 작가의 유족 등 개인이 소장한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전 당시 배포되었던 팸플릿이나 입장권, 유리권 판 등 현재 공공기관이 소장하지 않는 자료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원문 자료의 수집과 연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히 온라인 검색이 되지 않는 잠재적 소장처의 리드 파일(lead)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3.2.1 도록 및 브로셔

먼저 도록의 간존 양상을 살펴보았다. 총 19회에 걸친 조선미전 도록과 26회분에 해당하는 국전 도록은 영인본

으로도 발간되어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서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조선미전 도록 중 2회와 11회를 제외한 전 회차 도록에 대한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전 도록 중 일부(20회, 22회~25회, 27회, 29~30회)는 정부간행물로 납본받아 국가기록원이 온라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도판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국전 도록의 일부를 소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원문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조선미전은 20회(1941년)부터 23회(1944년)까지의 도록이 없고, 국전은 1회(1949년)부터 5회(1956년)까지 도록이 발간되지 않았다. 도록이 없는 전람회의 경우 출품 작품과 작가, 심사위원과 심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자료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도록 외에 공모전 과정에서 생산된 팸플릿이나 브로셔, 유리건판²⁾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도록이 없는 국전 1회~5회차의 브로셔와 다른 회차의 소책자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제27회) 국전 : 동양화·서양화·조각」 리플릿(문화공보부1978),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건축부문 수상작」(대한건축사협회, 1979) 등 도록 외의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중 현재 국전이나 조선미전 도록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으며 용어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전’과 같은 키워드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목록 내려받기나 붙여넣기 기능도 허용하지 않는 등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실태는 공모전 기록화와 통합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말해준다. 전시 도록이나 소책자 등 공모전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조선미전과 국전의 회차별로 수상작과 작가, 심사 결과와 심사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기본 정보원이므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3.2.2 행정기록

조선미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기록은 조선총독부 관보다. 여기에는 조선미술전람회와 관련하여 72건의 기사가 실려있는데, 특히 도록이 없는 20회(1941년)~23회(1944년) 관련 기사 12건에는 해당 회차의 수상작품과 작가명이 게시되어 있다. 그밖에 행정기록 대부분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선미전과 국전 관련 기록의 소장 목록을 공개 청구(2024.8.24)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해당 청구를 이송하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미전 관련 기록은 10건에 불과하다. 이 중 7건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으로 모두 스캐닝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원문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선미전 참관 초청이나 규정, 예산 증액 관련 문서로 정보 가치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3건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관한 단행본 자료들이다.

국전의 경우, 당시 주관 부처인 문화공보부가 매 전람회를 진행하면서 국전 철을 만들어 기록을 생산하였고, 이러한 기록물철은 대부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국가기록원은 150여 건의 국전 관련 문서 기록과 2천여 건의 시청각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관보에는 약 20건(키워드 검색 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9건, 국전 11건)이 실려있다. 제1회 국전에 관한 문서는 5건이 남아있었는데, 국전 개최 관련 규정에 관한 관보 기사 3건, 그리고 일반문서는 “1949년도 문교부 소관 미술전람회 경비로 예비비 지출의 건(제86회)”으로 총무처와 국무총리비서실이 생산한 국무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다. 제1회 국전은 예산이 미처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제2회 국전철’의 생산자는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이며 총 4건(제2회국전심사위원위촉에관한건, 제2회국전대통령수상작상정에관한건, 제2회미술전람회(국전)평의원위촉에관한건, 제2회미술전람회(국전)추천작가선정에관한건)이 포함되어 있다.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을)’철 안에는 <표 1>과 같이 96건의 기록물

2) 유리건판은 유리 위에 이미지를 찍어낸 건판이며, 필름 사진이 나오기 전에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유리로 된 사진필름이라고 볼 수 있다.

건이 편철되어 있다. 편철된 기록물건의 순서와 내용으로 제12회 국전(1963)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과 방식을 알 수 있다.

<표 1> 제12회 국전철(1963)에 포함된 기록물건 리스트

건번호	기록물건 제목	건번호	기록물건 제목
1-1	미술작품구입 비치의뢰	49-1	제12회 국전 공지사향 방송의뢰
2-1	국전작품 구입의뢰	50-1	제12회 국전 심사위원회회장단 선출보고
3-1	미술작품 반출독촉	51-1	제12회 국전 개관식 개최통보
4-1	앨범구입의뢰	52-1	제12회 국전 개관기념사진 촬영의뢰
5-1	제11회 국전도록 발간허가승인	53-1	제12회 국전 실내외장치 추가의뢰
6-1	제11회 국전도록 발간허가승인요청	54-1	제12회 국전 장치인부 임금지급의뢰
7-1	국전전자료 수집의뢰	55-1	제12회 국전 실내외장치 추가의뢰
8-1	제12회 국전을 위한 상근직임시직원해면조치	56-1	제12회 국전 심사결과보고
9-1	고궁출입 알선의뢰	57-1	경복궁미술관 출입증 발행
10-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실시요강	58-1	제12회 국전도록 발행승인
11-1	공지사향 방송의뢰	59-1	제12회 국전 심사위원수당 지불의뢰
12-1	제12회 국전을위한상근직임시직원해면조치	60-1	제12회 국전 시상식주의의뢰
13-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개최	61-1	제12회 국전 임시직원급료 지급의뢰
14-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출품원서용지배부	62-1	제12회 국전 공지사향 방송의뢰
15-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실시요강	63-1	제12회 국전 시상식통보
16-1	앨범구입의뢰	64-1	제12회 국전 시상식초청장 인쇄의뢰
17-1	공지사향 방송의뢰	65-1	제12회 국전 대통령상 시상양청
18-1	제12회 국전개최	66-1	제12회 국전 시상식거행
19-1	잡인부 임금지급의뢰	67-1	제12회 국전 시상식 축사의뢰
20-1	국전포스타 인쇄의뢰	68-1	제12회 국전 공지사향 방송의뢰
21-1	제12회 국전개최	69-1	제12회 국전 고문 및 심사위원 청와대초치진달양청
22-1	제12회 국전출품원서 배부	70-1	제12회 국전 상장인쇄 및 부상제작의뢰
23-1	제12회 국전개최	71-1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각하 치사양청
24-1	기본운영계획 변경승인요청	72-1	제12회 국전 시상식장 장치의뢰
25-1	목간전용 신청의뢰	73-1	제12회 국전 심사위원수당 지불의뢰
26-1	국전 임시직원 채용의뢰	74-1	제12회 국전 시상식 거행
27-1	제12회 국전 선전탑설치 및 포스타정부	75-1	제12회 국전 시상금 지급의뢰
28-1	제12회 국전 포스타배부	76-1	제12회 국전 임시직원급료 지급의뢰
29-1	국전 임시직원 채용의뢰	77-1	제12회 국전 시상식식사 작성
30-1	제12회 국전협조의뢰	78-1	제12회 국전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31-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선출	79-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회소집
32-1	제12회 국전 공지사향 방송의뢰	80-1	공지사향 방송의뢰
33-1	강당사용 의뢰	81-1	제12회 국전관람자수보고
34-1	제12회 국전 공지사향 방송의뢰	82-1	상장필경료 지불의뢰
35-1	제12회 국전 실내장치의뢰	83-1	제12회 국전도록추천승인의뢰(회신)
36-1	제12회 국전 자문위원회소집	84-1	성명 정정 통보
37-1	제12회 국전 개관식 임석양청의뢰	85-1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
38-1	제12회 국전 공지사향방송의뢰	86-1	경복궁미술관 사무실 사용의뢰
39-1	제12회 국전 협조지시	87-1	미술작품 구입의뢰
40-1	제12회 국전 추천작가회의	88-1	진정서에 대한 회신
41-1	제12회 국전 초청장발송	89-1	경복궁미술관 창고사용기간연장
42-1	제12회 국전 학생관람 권장의뢰	90-1	대통령 및 국무총리 결재사항보고
43-1	국전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의뢰	91-1	임시직원 채용의뢰
44-1	제1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위촉	92-1	해외파견자에 대한 환불조치의뢰
45-1	제12회 국전에 종사할 감시원안내원채용의뢰	93-1	공무해외여행 허가신청의뢰
46-1	제12회 국전에 사용할 의자대여의뢰	94-1	해외예술활동장려 보조비지급
47-1	제12회 국전 장치인부 임금지급의뢰	95-1	공무해외여행 허가신청의뢰
48-1	제12회 국전 심사위원 수당지불의뢰	96-1	제12회 국전대통령상수상자 해외파견

<표 2> 국전수상작품관리전환 기록물철(1978-1980)에 포함된 기록물건 리스트

건번호	건제목	건번호	건제목
1-1	제27회 봄국전 수상작품 구입	6-1	새마을 기록화 대여
2-1	작품구입 현황 및 소개 통보	7-1	국전 수상 미술작품 구입
3-1	미술작품 (국전 수상작품)구입	8-1	제28회 봄국전 미술작품 관리전환 조치의뢰
4-1	미술작품 관리전환 조치 의뢰	9-1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초상화 제작
5-1	미술작품 관리전환 조치 의뢰	10-1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초상화 차량 설치

한편 문화공보부가 생산한 “국전수상작품관리전환” 기록물철(1978-1980)은 <표 2>와 같은 기록물건으로 구성되는데, 국전 출품작품들의 국가 구매와 관리전환에 관련된 기록물, 그리고 특이하게 고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 제작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는 작품의 이력 정보 기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국전과 관련하여 소장한 시청각 기록은 약 2,150건으로 검색되었는데, 생산기관은 대부분 공보처(1948-1956), 공보국(1956-1961), 공보부(1961-1968), 문화공보부(1968-1989)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의 국전 관람 및 시상식 사진, 전시된 작품 사진이 대부분이다. 작품 사진의 경우 대개 흑백이고 작품 사진으로서의 전문성은 약해 보이지만 도록에 실린 도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진별로 작품명이나 작가명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록에 수록된 도판과 일일이 비교해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3 신문기사

양대 관전은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의 공모전이었기에 언론보도의 양도 상당했는데 주로 잡지와 신문 기사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술논문들이 인용한 일차 자료는 도록과 함께 잡지나 신문 기사가 많았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기사 콘텐츠 DB를 구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한국미술연구소(1999)가 편찬한 『조선미술전람회기사자료집』에서는 1921년부터 1944년에 간행된 6종의 신문과 23종의 잡지에서 조선미전과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여 현대문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일본어는 번역하여 원문을 날짜별로 제공하고 있다. 오상길(2017)이 엮은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5, vol.3, 국전 미술의 비평적 재조명』에서는 1949년 제1회부터 1981년까지 국전에 관한 잡지 자료, 문서 자료 스크랩, 도서 목록, 작가 대담, 전시자료 등을 657쪽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조선미전과 국전 관련 신문기사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조선일보의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 네이버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는 1883년부터 1966년까지 발행된 신문을 디지털화하고 색인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두 저작권이 만료된 신문이므로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4). 2024년 8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는 신문 103종(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조선시보, 중외신보, 한성일보, 황성신문 등), 8백 만여 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검색 결과 ‘조선미술전람회’ 519건, ‘조선미전’ 143건, ‘선전’ 390건이,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혹은 국전은 40건, 관전(官展)은 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그런데 용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국전이나 선전과 같은 약어 검색의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걸러내기 위한 수작업 필터링이 필요했다. 가령 ‘선전’ 검색 결과에는 ‘鮮展’뿐 아니라 ‘宣傳’이라는 색인이 혼재되어 검색된다. 이러한 신문 기사들은 빅카인즈의 ‘고신문 아카이브’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현재 빅카인즈의 ‘고신문 아카이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빅카인즈 ‘고신문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도 키워드 검색과 신문사·발행일별 디렉토리 검색을 할 수 있고 검색 결과는 목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와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링크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에서는 한국 역사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특화 주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가 특화 주제 중 하나다. ‘근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는 18개의 옛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표 3> 참조). 이용자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제한 검색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신문 기사 외의 정보를 선택하여 추가 검색할 수 있다.

<표 3>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의 ‘근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 구성

대표 데이터 베이스명	세부 데이터베이스(18개)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중 일부)	경남일보,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매일신문, 매일신보, 제국신문, 조선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협성회보, 황성신문,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DB 13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 신문자료, 부산일보, 자유신문 (DB 3종, 4,954,462건)
하와이대학교 미주한인생활사자료DB	미주한인생활사자료 DB (4,595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신문류 서지 (149,404건)

조선일보의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은 조선일보에서 1920년 창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기사를 디지털화 하여 기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20~1930년대의 기사의 경우 여러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현대한 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선뉴스 라이브러리 100’에서는 2024년 9월 5일 기준, 26만여 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조선미술전람회’ 834건, ‘조선미전’ 799건, ‘선전’ 관련 기사는 키워드 조합(선전 AND 미술) 및 기간 제한(1920.1.1~1944.12.12) 검색 결과 약 160건이 검색되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133건, 국전의 경우 필터링을 위하여 ‘국전 AND 미술’과 같이 키워드 조합 검색을 통해 1,656건이 검색되었다.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는 네이버에서 2008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옛날 신문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다. 네이버 뉴스(<https://news.naver.com/>)에서는 2000년 이전 기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1920년 3월 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의 창간 이후 신문 기사는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다. 날짜 검색,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이 가능하며, 마이스크랩(열람한 신문 보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9월 5일 기준, 공모전 자료에 대한 키워드 검색 결과 ‘조선미술전람회’로는 1,438건, ‘조선미전’으로는 784건, 대한민국미술전람회 425건, ‘국전(國展)’의 경우 4천여 건이 검색되었다.

신문 외에 잡지에 수록된 기사도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다. 조선미전 관련 연구에서는 김승익(2014)의 논문과 같이 일본어 잡지 기사를 활용하며, 앞서 언급한 『조선미술전람회기사자료집』에는 일본어 기사를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다(한국미술연구소, 1999). 이렇게 흩어져 존재하는 국전과 조선미전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활용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조선미술전람회기사자료집』과 같은 참고 정보원이 있지만 책자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전과 관련해서는 관련 1차 정보원을 포괄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한국 근현대 미술 연구에서 양대 관전 기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는 양대 공모전의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볼 때 일부에 해당할 것이며, 계속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축적하고 기존 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기록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4. 관설 공모전 기록화 모형의 설계

4.1 모형 설계의 원칙

관설 공모전 기록화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미전과 국전의 회차별로 공모 부문, 출품작과 작가, 심사 결과와 심사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생산하고, 특히 작품 이미지가 작품정보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조선미전과 국전 과정에서 생산된 도록 및 소책자, 그리고 신문 및 잡지 기사, 행정기록,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공모전 정보와 연계한다. 셋째, 근현대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기초 정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전 정보 및 관련 자료를 구조화한다.

이러한 기록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할 원칙은 체계성, 포괄성, 확장성, 상호운용성이다. 먼저 공모전이라는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화 대상을 설정하고, 각 대상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체계성). 또한 공모전과 관련 행위 주체, 다양한 장르의 작품, 다양한 출처와 매체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기술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포괄성). 양대 관설 공모전에 대한 기록화를 토대로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확장성), 공모전 기록화 과정에서 축적된 작품, 작가, 공모전 등에 관한 정보가 다각적으로 재이용되거나 공유하기 쉬운 형식으로 축적되어야 한다(상호운용성).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록화 모형의 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중 개체 모형(multi-entity model)을 적용한다.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개체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각 개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개체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개체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하면 확장성은 물론 정보의 재활용과 공유에도 유리하다.

둘째, 개체 및 개체 간 관계는 한국의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 및 관설 공모전 기록화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의 기록화에 필요한 핵심 개체를 고려해야 하며, 양대 관설 공모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모전 외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강석훈(2024)은 이를 ‘축적형 기록화’라고 명명한 바 있다.

셋째,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정보와 자료의 기술에 국제표준을 적용한다. 작품, 작가, 이벤트, 텍스트 및 이미지 자료의 기술에 적합한 표준을 채택하되 미술계 및 기록정보관리계의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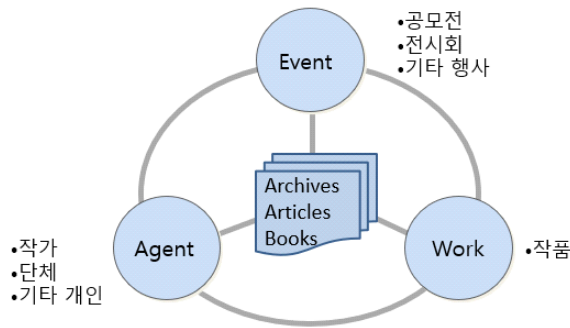
넷째, 작품명, 작가명 및 핵심 용어를 통제하면서 기록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전 기록화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로 확대되려면 용어통제가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 동명이인이나 동일한 작품명을 구분하고, 동일 작품에 대한 복수의 제목, 동일인에 대한 복수의 인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미전 작가의 경우, 일본인명의 다양한 표현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장소나 사건과 같은 주제명도 통제하면 효과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2 기록화 대상의 설정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에서 핵심적인 정보 유형은 ‘작가’, ‘작품’, ‘전시’ 등이다. 이러한 세 영역이 미술사 기록화의 일차적 대상이며, 데이터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적인 정보 개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록화 및 데이터모형의 관점에서 볼 때, 각 개체의 개념을 더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작가뿐 아니라 심사위원, 기증자, 소장자 등 다양한 미술 단체나 개인들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체로 ‘Agent(행위자)’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ISO 23081-1이나 RDA에서의 Agent 개념과 유사하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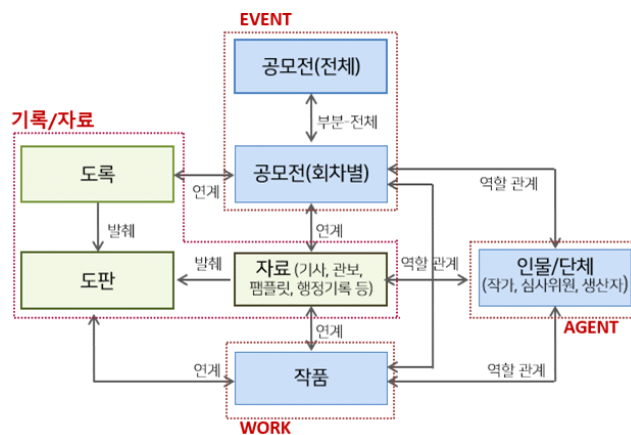
(Work)’에는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장르뿐 아니라 건축,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개념미술, 대지미술, 퍼포먼스 미술(performance art)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전시의 경우 미술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Event)’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모전이나 기타 행사 등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 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에는 (가) 미술전시에 관한 정보, (나)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 가격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다)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 (라) 미술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미술정보시스템과 미술아카이브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고 필요한 요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의 네 가지 정보 범주는 작품, 인물/단체, 이벤트라는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 작품,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개체유형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록화 대상에 대한 기본정보가 구축되면, 관련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여 연계해야 한다. 가령, 조선미전과 국전에 관한 언론보도와 행정문서,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공모전, 작가, 작품 등의 정보와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기록화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화 모형(안)

양대 관설 공모전 기록화에는 수만 점의 미술작품과 수만 명의 한국 대표 작가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근현대 미술 기록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전 기록화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에 중요한 이벤트, 행위 주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관설 공모전 기록화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 모형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미전과 국전이라는 이벤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기록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관설 공모전 기록화를 위한 작업 모형

먼저 공모전 회차별, 작품별, 작가별로 충실한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체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한다. 다개체 모형을 적용하면,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정보자료의 지속적인 수집과 축적이 가능해지고, 개체별 정보도 풍부해진다. 가령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조선미전과 국전의 출품작이나 작가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기존의 개체별 정보에 추가할 수 있다.

먼저 도록을 활용하여 회차별 공모전 정보(공모 부문, 심사위원, 수상 내역, 참가 작품, 작가 등)를 집합적으로 기술한다. 도록이 없거나 도록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관보나 행정기록, 신문 기사, 참고 자료 등 다양한 출처와 매체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회차별 공모전 정보에 포함된 인물(작가, 심사위원)과 작품에 대한 정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기술한 후 이를 공모전(회차별) 개체와 연결한다.

작가와 심사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인물/단체'와 같이 하나의 개체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공모전 회차에 따라 동일인의 역할(심사위원, 수상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의 기술을 해주고, 역할을 별도로 기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작가뿐 아니라 심사위원, 자료의 저자나 기록 생산기관, 작품의 소장자나 소장기관 등도 동일한 형식으로 기술해야 일관성 있게 인물/단체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단체 개체에 맞는 메타데이터 요소에 따라 기술한 후, 공모전(회차별), 자료, 작품 개체와의 역할 관계를 표시한 후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모전, 작품, 인물, 자료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작품 개체는 도록에서 발췌한 도판과 연결한다. 각 도판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를 기술해야 한다. 작품과 도판 관계는 1:다(多)가 될 수 있는데, 도록뿐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 추출한 도판도 기술한 후 연결할 수 있다. 도록, 도판, 자료 개체에는 가급적 디지털 원문(이미지나 텍스트)이 연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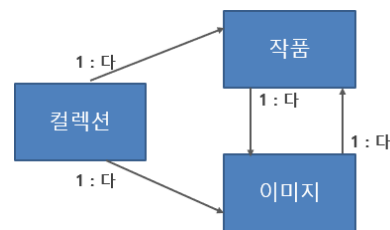
신문·잡지 기사, 관보, 팸플릿 등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도 각각 기술한 후 이를 인물/단체, 작품, 공모전(회차별) 등 관련 있는 개체와 연결한다. 도록이나 도판, 기사나 팸플릿, 도서 등은 모두 기록/자료 개체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미지 자료와 텍스트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 원문을 수집하여 기록화 대상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기록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 고어(古語)로 기술된 조선미전 자료의 경우,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자료 기술에 기사 내용 번역이나 해석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4.3 표준화와 용어통제

기록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고 충실하게 생산·축적하고, 타 기관 소장자료와 연계하여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작품과 작가 정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로 확장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자원이므로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 미술작품 기술을 위한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은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와 VRA CORE(Visual Resources Association Core)다. 양 표준의 데이터모형은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CDWA 데이터모형



<그림 6> VRA Core 데이터모형

CDWA는 미술, 건축, 문화유물, 작품 컬렉션, 관련 이미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입수하기 위한 개념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기술을 지원한다. CDWA에는 500개가 넘는 범주와 하위 범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게티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는 작품 자체뿐 아니라 작품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전거, 장소/위치 전거, 일반 개념 전거, 주제 전거를 위한 요소와 규칙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시각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분하여 연결할 수도 있다(Getty Research Institute, 2022).

Dublin Core가 MARC의 수많은 요소 중에서 핵심 요소만을 추려낸 것처럼 VRA Core는 시각문화 작품과 작품을 담은 이미지를 기술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간결하게 정의한 표준으로 현재 미국 의회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 시각문화 작품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지만 회화, 소묘, 조각, 건축, 책, 장식 등의 사물뿐 아니라 퍼포먼스 미술과 같은 이벤트가 포함될 수 있다. VRA Core 4.0 데이터 모델은 컬렉션, 작품, 이미지의 세 가지 기본 개체로 구성된다(<그림 6> 참조). 핵심적인 기술 개체는 작품이며 여기에 하나 이상의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다. 단일 이미지가 하나 이상의 작품과 연관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시회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가 여러 작품을 묘사하는 경우다. 컬렉션 레코드는 여러 작품 또는 여러 이미지의 집합체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7).

CDWA와 VRA Core는 작품의 특징과 주제뿐 아니라 전시 및 대여 이력, 소장자, 저작권 등과 같이 작품의 관리와 서비스와 관련된 요소도 포함하며, 작품 이미지 및 관련 자료도 기술하고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CDWA나 VRA Core를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CCO(Cataloging Cultural Objects)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발행한 CCO에서는 CDWA 및 VRA Core의 핵심 범주에 따라 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선별과 배치, 서식 지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CCO는 CDWA 및 VRA Core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규칙 세트이며 AACR 및 DACS와 더 유사하다(Getty Research Institute, 2022).

기록화의 원칙에서도 밝혔듯이 문화예술 아카이브에서 용어통제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전 출품작 중에는 ‘무제(Untitled)’, ‘정물’, ‘여인’, ‘풍경’과 같은 제목이 무수히 많아 검색하기 어렵고, 작품 레코드의 고유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작품의 제목뿐 아니라 동명이인의 작가도 구별해야 한다. 또한 한 작가가 여러 이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가령 조선미전에 참가작가 중 가토 쇼린은 加藤儉吉, 가등검길, 松林, 쇼린진, 松林人 등 다양한 이름을 갖는다(최영민, 2024). 인물이나 작품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이를 토대로 정보의 축적과 기록화를 지속할 수 있다. 작품이나 작가의 이름뿐 아니라 미술 양식이나 장소명 등 다른 용어들도 통제하면 품질 높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거레코드나 시소러스가 필요하다.

게티연구소는 CDWA를 기반으로 ‘어휘집(Getty Vocabularies)’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휘통제 도구들은 CONA(Cultural Objects Name Authority), ULAN(Union List of Artist Names), TGN(Getty Thesaurus of Geographic Names), AAT(Art & Architecture Thesaurus), IA(Getty Iconography Authority) 등이다. 이를 통해 <그림 5>에 표현된 CDWA의 전거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CONA는 건축, 회화, 조각, 판화 등의 예술작품과 문화유물을 식별하고 제목을 통제하기 위한 전거DB다.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에서는 유사한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품에 대한 고유한 ID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CONA에서는 작품별로 고유 식별기호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에서 부여한 식별기호도 병기할 수 있다. CONA의 필수 요소는 고유 식별기호, 제목, 제작자, 객체/작품 유형, 제작 날짜, 현재 위치, 재료, 크기 및 주제 등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 모나리자에 대한 CONA 레코드는 <그림 7>과 같다(Getty Research Institute, n.d.b).

ID: 700000213	Record Type: Movable Work
Page link: http://vocab.getty.edu/page/cona/700000213	
Images: 1	
Mona Lisa (painting (visual work); Leonardo da Vinci (Italian painter, draftsman, scientist, 14...; 1503/1506; Louvre Museum (Paris, Île-de-France, France);)	
Note: Half-length portrait of a seated woman, thought to be Lisa Gherardini, wife of Florentine cloth merchant Francesco del Giocondo. The ambiguity of the subject's expression, the monumentality of the composition, and the subtle modeling of forms and atmospheric illusionism were novel qualiti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continuing fascination and study of the work. The Mona Lisa's famous smile may be emblematic of the sitter's name, in the same way that the juniper branches represent Ginevra Benci and the ermine represents Cecilia Gallerani in other portraits: it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idea of happiness suggested by the word "gioconda" in Italian. This portrait was painted in Florence between 1503 and 1506. However, Leonardo seems to have taken the portrait to France rather than giving it to the person who commissioned it. According to contemporary biographer Giorgio Vasari, the artist lingered over the portrait for four years and ultimately left it unfinished. It was eventually returned to Italy by Leonardo's student and heir Salai. It is not known how the painting came to be in François I's collection.	
Titles:	
Mona Lisa (preferred,C,U,RP,Italian-P,U,U,English-P,U,U,French-P,U,U)	
Portrait of Lisa Gherardini (C,U,DE,English,U,U)	
الموناليزا (C,U,Arabic,U,U)	
蒙娜丽莎 (C,U,Chinese,U,U)	
La Joconde (C,U,French,U,U)	
Móna Alíza (C,U,Greek,U,U)	
La Gioconda (C,U,Italian,U,U,undetermined,U,U)	
モナ・リザ (C,U,Japanese,U,U)	
Monna Lisa (C,U,undetermined,U,U)	
Mona Lisa - Portrait of Lisa Gherardini, wife of Francesco del Giocondo (C,U,undetermined,U,U)	
Catalog Level: item	
Work Types:	
painting (visual work) [300033618] (preferred)	
..... (Objects Facet, Visual and Verbal Communication (hierarchy name), Visual Works (hierarchy name), visual works (works), <visual works by material or technique>)	
oil painting (visual work) [300033799]	
..... (Objects Facet, Visual and Verbal Communication (hierarchy name), Visual Works (hierarchy name), visual works (works), <visual works by material or technique>, paintings (visual works), <paintings by material or technique>)	
Classifications:	
paintings (preferred)	
Creation Date: 1503/1506	
Creator Display:	
Leonardo da Vinci (Italian painter, draftsman, scientist, 1452-1519) [preferred,VP]	
painter Leonardo da Vinci (Italian painter, draftsman, scientist, 1452-1519) [500010879]	
Locations:	
Current: Louvre Museum (Paris, Île-de-France, France) [500125189] Corporate Bodies (Corp. Body)	
Creation: Firenze [7000457] Firenze province (province), Tuscany (region (administrative division)), Italy (nation), Europe (continent), World (facet) (Geographic)	

(... 이하 생략 ...)

<그림 7> CONA 레코드 사례 : Mona Lisa (Getty Research Institute, 2024b)

ULAN은 예술가나 건축가의 이름, 이력, 기타 정보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공한다. 개인뿐 아니라 건축사무소나 회사, 스튜디오, 후원단체 등과 같은 단체도 포괄하며, 다른 정보원에 대한 링크도 제공한다. 선호하는 이름과 기타 이름을 기술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추출한 이름 형식도 함께 제시한다. 우리나라 작가 김환기의 ULAN 레코드에서는 “Kim, Whanki”을 우선어(preferred)로, 그리고 Whanki Kim; Kim Whanki; Kim Hwan-gi; Kim, Hwangi; Gim, Hwangi; Whanki, Kim; 김환기; 金煥基와 같은 이형 표현을 보여주고, 국적, 역할, 성별, 생몰년 및 지역, 이벤트, 이력, 이름 표현의 출처 등을 보여준다(Getty Research Institute, n.b.c).

TGN, AAT, IA는 장소명, 일반 용어 및 주제어를 통제하기 위한 시소러스다. TGN은 예술, 건축 등과 관련된 전 세계의 장소명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다. 현재 도시와 지금은 사라진 역사 도시, 제국, 고고학 유적지, 잃어버린 정착지 등을 대상으로 장소의 이름과 다양한 이형의 이름, 풍부한 관계, 장소 유형, 날짜, 메모 및 좌표를 제공한다.

또한 GIS 및 기타 정보원에 대한 참조 정보도 제공한다. AAT는 예술과 건축 등에 관한 일반 개념(generic concepts)에 관한 시소러스로서 작품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기술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이다. 작품 유형, 역할, 재료, 역할, 양식, 문화 및 기법에 대한 용어들이 계층화되어 있으며 용어 및 다양한 언어 표현형, 관계, 출처 및 범위 등의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다. IA는 상징적 서사, 종교적 또는 신화적 인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나 허구적 사건, 문학 작품의 이름, 공연예술 등의 고유명사, 관계 및 낱자를 포함하는 시소러스로서 주로 비서구권 주제를 다루고 있다. 게티연구소의 어휘집들은 쌍방향으로 링크되어 개체별 정보를 넘어 풍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ONA, IA, AAT, TGN, ULAN 데이터는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오픈 데이터 커먼즈 라이선스(ODC-By)에 따라 저작자 표시만 하면 무료로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API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고 AAT, TGN 및 ULAN은 LOD, 관계형 테이블 및 XML로도 제공된다. 또한 ULAN 데이터는 국제가상전거파일(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VIAF)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게티 어휘집은 기록화 및 목록 시점에서 데이터값 표준으로 활용하고, 동일한 개념에 대해 용어를 일관성 있게 부여하도록 이용할 수 있다. 사람, 장소 및 사물에 대한 선호되는 명칭이나 용어, 동의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기록화를 위한 구조와 분류 체계를 제공할 수도 있다(Getty Research Institute, n.b.a).

국내에도 미술작가와 단체의 이름, 미술 용어를 통제하고 해설을 제공하는 정보원이 존재한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되어 현재 웹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이다. 20세기 한국미술 이해에 필수적인 미술 문화 용어, 해외에서 유입된 미술사조·미술운동 관련 용어뿐 아니라 인물과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전시와 같은 이벤트도 미술 용어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글 용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할 때 권고안도 제시하고 있어서 용어통제 기능도 수행한다(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n.d.). 상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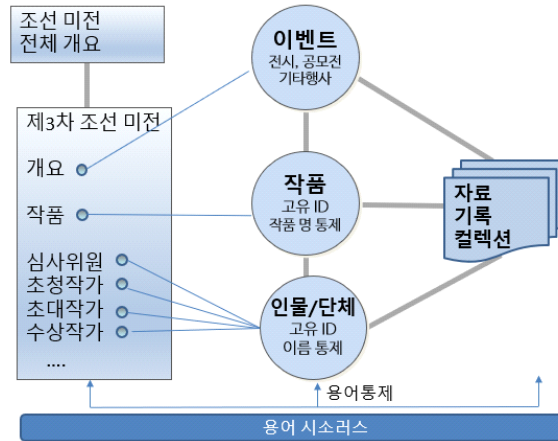
<표 4>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의 용어 구성(한국어 다국어 용어사전, n.d.)

구분	대상	데이터 출처	기술 요소
인물	1850년에서 1970년까지 출생한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공립미술관 웹사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DA-Arts, 김달진미술연구소 인물 DB, 그 외 작가 관련 대표 기관이나 사이트	한글명, 생몰년, 활동분야, 세부사항, 한자, 아호(이칭), 영문명(영문 및 한문 표기 통제)
단체	미술단체, 학술회, 교육기관,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미술용어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국공립미술관 전시도록 및 한국 근현대 미술 주요 단행본 및 학술논문, 신문 등의 색인과 김달진미술연구소의 『한국미술단체자료집 1945-1999』 등	표기 및 소개(국문, 영문, 한문, 중문, 일문), 비교(참고정보 등), 관련 용어
용어	재료, 기법, 사조, 유파, 미술운동, 사건, 전시, 미술단체, 교육기관,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미술용어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국공립미술관 전시도록, 한국 근현대 미술 주요 단행본 및 학술논문, 신문 등의 색인	비교/구분, 개념정의(한글, 영문, 중문, 일문), 관련 용어 (교차/연관/유사어, 관련 인물, 관련 단체)

이 온라인 용어집은 일부 링크 기능이 있지만 웹서비스에 맞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공유나 재활용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용어사전에 포함된 인물, 단체, 작품에 대한 정보는 향후 한국 미술아카이브 구축에 유용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한국 미술사를 기록화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정보로 재구조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4.4 확장성을 고려한 관설 공모전 기록화 모형

문화예술 분야의 메타데이터 현황과 구현 사례를 고려하여 한국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로의 확장과 관설 공모전 기록화에 적합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그림 8> 참조).



<그림 8> 한국 미술아카이브로의 확장을 고려한 관설 공모전 기록화 모형

첫째,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고유 식별기호 부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술작품에는 같은 제목을 가진 미술작품이 너무 많아서 제목만으로는 작품을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 작가 중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서 생몰년 등으로 한정해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NA나 ULAN에서와 같이 고유식별기호를 부여하여 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의 작가나 작품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도 고유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 메타데이터 표준들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작품 기록화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마련한다. CDWA나 VRA Core의 데이터모형을 국내 미술 아카이브 구축이나 공모전 기록화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개체별 기술 요소나 기술 규칙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작품과 작품 이미지의 기술을 위해서는 CDWA와 VRA Core의 요소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할 수 있다.

셋째, 4.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가는 작품과 다른 개체(Agent)로 독립적으로 기술하되 CDWA나 ULAN의 요소를 반영한다. 아카이브 기관에서 행위 주체로서 개인, 단체, 가문의 기술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ISAAR(CPF)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ULAN 번호나 ISNI와 같은 고유번호가 있는 작가의 경우 함께 기술해야 한다.

넷째, 기록과 자료를 위한 메타데이터도 CDWA와 VRA Core를 반영한다. 작품과 관련된 텍스트 자료(Related Textual References)와 이미지 자료(Related Visual Documentation)에 대한 정보는 <그림 5>와 같이 독립 개체로 기술한 후 작품 개체와 연결한다.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 기술에 필요한 요소도 CDWA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모전 기록화에서 도판은 CDWA의 이미지 자료 개체, 신문이나 잡지 기사, 문헌 등은 텍스트 자료 개체로 기술한 후 작품 개체와 연결 할 수 있다. 다만, 계층성을 갖는 보존기록물(archives)은 CDWA의 관련 자료 요소로는 기술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기록물의 경우 검색 도구(finding aids)를 별도로 만들어준 후, 텍스트 자료 개체에는 '검색도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여기에 검색도구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조선미전이나 국전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공모전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를 개발하여 작품, 작가,

이벤트 DB와 연계한다. 해외 사례에서 전시와 같은 이벤트는 별도의 개체로 독립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작가나 작품 기술의 요소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았다. CDWA의 'Exhibition/Loan History'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의 MOMA와 같은 기관에서는 전시와 행사를 별도의 개체로 기술하여 작가나 작품 개체와 동적으로 연결해 준다(MoMA, n.d.). 하나의 전시가 여러 명의 작가와 복수의 작품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MoMA 사이트에서 미국의 건축가 Frank Lloyd Wright를 검색하면 작가, 전시, 행사, 컬렉션, 보도자료, 잡지 기사, 설치 이미지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해당 정보와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MOMA에서 Event나 Exhibition을 기술하는 요소는 기간, 장소, 설명과 같이 요소가 간단하다. 따라서 조선미전이나 국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기술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조선미전과 국전에 대한 정보는 가이드(research guide) 형식의 별도 콘텐츠를 마련하고 여기에 작품, 인물/단체 레코드를 연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Event 개체에는 회차별 공모전에 대한 간략정보를 기술하고, 상세 정보는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작품 및 작가 기술에 필요한 미술 용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시소러스를 구축한다.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와 같은 용어 DB를 적극 활용하되 작품이나 작가 레코드와 링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술사조, 장르, 재료, 기법 등은 선택값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간략한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구축 시 외부 정보원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야 한다. 미국 MoMA 등의 미술 아카이브에서는 작가 및 작품 설명에 외부 정보원을 연계하여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Frank Lloyd Wright의 검색 결과에서 '작가'를 선택하면 생몰년, 이력과 생애, 작품, 전시, 출판물, 영상자료 등이 표시되며, 작품, 전시, 출판물 정보에는 대부분 이미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작가의 이력과 생애 정보 항목에는 자체 기술한 내용뿐 아니라 외부 정보원에서 가져온 자료(위키피디아, 게티연구소의 ULAN)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 국공립미술관이나 공공기관이 서비스용으로 구축한 데이터는 오픈 라이선스에 따라 개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공모전 기록화의 결과물도 공정이용(fair use)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조선미전과 국전 자료는 60여 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탐구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데도 그 활용 기반은 취약하다. 번거롭던 일차 자료의 이용이 편리해지면 근현대 미술사 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거행된 공모전을 기록화하는 작업은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보다 범용적이고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와 원문을 생산, 축적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잘 설계해야 한다.

최근 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관이나 문화예술기관들도 다양한 아카이빙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크기록원이 2023년에 추진한 조선미전 기록화를 위한 사업도 하나의 사례다. 필자는 이 사업의 말미에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조선미전이나 국전의 기록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설 공모전의 기록화는 물론 한국 근현대 아카이브 구축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대 관설 공모전의 작품과 작가, 공모전을 기록 수집을 위한 맥락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록화 모형은 국전과 조선미전 외의 다른 공모전, 다른 작품과 작가로 기록화 대상을 확장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 한마디로 ‘열려있는 동적 기록화’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이나 작가에 관한 정보, 관련 자료와 기록을 한꺼번에 구축하거나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는 대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결하는 ‘열린 기록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선미전이나 국전에 출품된 지 오래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공모전이 끝난 1981년 후에, 혹은 관설 공모전 외에 출품되거나 전시되었던 한국 미술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폭넓은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전을 비판하며 거행되었던 낙선작가전의 참가작 및 작가에 대한 기록화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작품, 작가, 이벤트가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동적(動的)으로 연결되는 기록화를 강조한다.

양대 관설 공모전 기록화를 토대로 한국의 근현대 미술 아카이브는 더 멀리, 넓게 아카이빙 대상을 포괄해야 한다. 1995년에 문을 연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광주비엔날레가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설치 중심의 동시대 미술을 위한 아카이브는 기존의 정적 아카이브와는 차원이 다른 기록화 전략을 필요로 한다. 관설 공모전 아카이브가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면, 동시대 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훈 (2024). 전승공동체 중목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방안과 과제. 무형유산, 16, 67-94.
<https://doi.org/10.22956/NIHC.2024..16.003>
- 고려서적주식회사 편 (1986). 역대국전사군자도록.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 고려서적주식회사 편 (1988). 역대국전동양화도록 : 역대국전전시작품총수록.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 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출처: <https://nl.go.kr/newspaper/>
- 국립현대미술관 편 (1977). 역대국전수상작품도록 : 1회-26회. 서울: 바른손.
- 권영진 (2018).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상 아카데미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5, 147-174.
<https://doi.org/10.46834/jkmcah.2018.07.35.147>
- 김승익 (2014). 1910~1930년대 재한화가들의 조선미술전람회에 대한 논의—일본어잡지 『조선과만주』, 『조선공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7, 65-86.
- 김영관 편저 (1992). (1922년-1991년)역대국전작가총람: 대한민국미술대전입상자명단(동양화, 서예, 서양화, 조각). 서울: 종문사.
- 김영석 (1983). 역대국전작가총람 : 서양화편. 서울: 인전사.
- 네이버 (발행년불명).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 대한건축사협회 (1979).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건축부문 수상작.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미술의 정화(精華)-제1회 미전입선작품발표 (1949. 11. 19.). 한성일보, 2.
- 목수현 (2011). 조선미술전람회와 문명화의 선전(宣傳). 사회와 역사, 89, 85-115.
- 문화공보부 (1972). 국전도록 제20회. 서울: 광명출판사.
- 문화공보부 (1977). 국전도록 25회. 서울: 광명출판사.
- 문화공보부 (1978). (제27회) 국전 : 동양화·서양화·조각(리플릿). 서울: 문화공보부.
- 미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09호.
- 미술진흥법. 법률 제19568호.
- 빅인즈 (발행년불명). 고신문 아카이브. 출처: <https://www.bigkinds.or.kr/v2/news/oldNews.do>

- 송향선 (2022). 미술품 감정과 위작 :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의 위작 사례로 본 감정의 세계. 과주: 아트박스.
- 안현정 (2012).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서울: 이학사.
- 예술의 전당 (1990). 한국서예국전30년전. 서울: 예술의 전당.
- 예술의 전당 (2007). 1970년대 한국미술 : 국전과 민전. 서울: 예술의 전당.
- 오상길 엮음 (2017).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5, vol.3, 국전 미술의 비평적 재조명. 서울: 서울현대미술연구소(ICAS).
- 울산문화예술회관 편 (2015). 대한민국 국전작가 초대전: 역대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가전.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 이중희 (2005). 조선미전 설립과 그 결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37-70.
- 전영석 편저 (1982). 역대국전작가총람 : 동양화, 서예. 서울: 인전사.
- 조선일보 (발행년불명).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 출처: <https://newslibrary.chosun.com/search/search.html>
- 朝鮮總督府 (1934). 第13回 朝鮮美術展覽會圖錄. 京城 : 朝鮮寫眞通信社.
- 조은정 (2009). 권력과 미술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 서울: 아카넷.
- 최영민 (2024). 관설 미술공모전 아카이브에서의 전거제어 및 시소러스 구축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90-101.
- 한국근대미술연구소 편 (1981). 국전30년. 서울: 수문서관.
-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발행년불명). 출처: <https://www.gokams.or.kr/visual-art/art-terms/intro/info.asp>
- 한국미술연구소 편 (1999).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 서울: 시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한국학자료 통합플랫폼. 출처: <https://kdp.aks.ac.kr/>
- 현대미화사 편 (발행년불명). 역대국전작가총람 : 한국화, 서예, (사군자) : 문공부 주최 (제1회-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예진흥원 주최(제1회-제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울: 현대미화사.
- 홍선표 (2024). 한국 근대 관전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미술연구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34-43.
- Getty Research Institute (2022, January 24).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Available: https://www.getty.edu/research/publications/electronic_publications/cdwa/
- Getty Research Institute (n.d.a). The Getty Vocabularies. Available: <https://vocab.getty.edu/>
- Getty Research Institute (n.d.b). Mona Lisa. In: Cultural Objects Names Authority® Full Record Display. Available: <https://www.getty.edu/cona/CONAFullSubject.aspx?subid=700000213>
- Getty Research Institute (n.d.c). Kim, Whanki. Union List of Artist Names Online Full Record Display. Available: https://www.getty.edu/vow/ULANFullDisplay?find=kim+whanki&role=&nation=&prev_page=1&subjectid=500041134
- Library of Congress (2007). VRA Core 4.0 Element Description. Available: https://www.loc.gov/standards/vracore/VRA_Core4_Element_Description.pdf
- MoMA (n.d.). Frank Lloyd Wright. Available: <https://www.moma.org/artists/6459>
- 金惠信 (2005). 韓国近代美術研究 : 植民地期 「朝鮮美術展覽會」 にみる異文化支配と文化表象. 東京 : ブリュッケ.
- 東京文化財研究所 編 (2006). 昭和期美術展覽會出品目録 戦前篇.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 東京文化財研究所 編 (2009). 昭和期美術展覽會の研究: 戦前篇.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Korean Studies Resources Integration Platform. Available: <https://kdp.aks.ac.kr/>
- Ahn, Hyunjeong (2012). *The Modern Gaze, Joseon Art Exhibition*. Seoul: Ihaksa.
- Art History Forum ed. (1999). *The Choson Art Exhibition: Sources and Articles*. Seoul: Sigongsa.
- Art Promotion Act. Act No. 19568.
- Bigkinds (n.d.). Old Newspaper Archives. Available: <https://www.bigkinds.or.kr/v2/news/oldNews.do>
- Cho, Eun-jung (2009). *The Power and Ar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Art under the First Regime of Korea*. Seoul: Arcanet.
- Choi, Youngmin (2024). A plan of authority control and thesaurus in the Archive of the official art competitions. *Proceedings of the Joint Symposium of the Arts Council Korea and Korean Art Institute: The Need for and Direc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chives*, 90-101.
- Chosun Ilbo (n.d.). Chosun News Library 100. Available: <https://newslibrary.chosun.com/search/search.html>
-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709.
- Goryeo Book Company ed. (1986). *Catalogue of National Art Exhibition Winners of the Sagunja Section*. Seoul: Goryeo Book Company.
- Goryeo Book Company ed. (1988). *Catalogue of National Art Exhibition Winners of the Oriental Painting Section*. Seoul: Goryeo Book Company.
- Hong, Sunpyo (2024).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Korean modern art archives. *Proceedings of the Joint Symposium of the Arts Council Korea and Korean Art Institute: The Need for and Direc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chives*, 34-43.
- Hyundai Mihwasa (n.d.). *A Compendium of the National Exhibition Artists: Korean Painting, Calligraphy, Sagunja*,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1st-30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hosted by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1st-4th). Seoul: Hyundai Mihwasa.
- Japanese Governor-General of Joseon (1934). *Catalogue of the 13th Joseon Art Exhibition*. Seoul: Joseon News Agency.
- Jeon, Young-seok (1982). *A Compendium of National Exhibition Artists: Oriental Painting, Calligraphy*. Seoul: Injeonsa.
- Kang, Seok-hoon (2024). Methods and tasks for recording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n traditional community.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6, 67-94. <https://doi.org/10.22956/NIHC.2024..16.003>
- Kim, Seungik (2014). A discussion on the Joseon Art Exhibition of the Japanese painter in colonial Korea during 1910-1930 : focusing on the Japanese magazine Choseon and Manchuria and The Chosen Review.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27, 65-86.
- Kim, Young-kwan ed. (1992). (1922-1991) *A Compendium of the National Exhibition Artists: List of Winners of the Korean Art Exhibition (Oriental Painting, Calligraphy, Western Painting, Sculpture)*. Seoul: Jongmunsa.
- Kim, Young-seok (1983). *A Compendium of the National Exhibition Artists: Western Paintings*. Seoul: Injeonsa.
- Korea Institute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ed. (1981). *30 Years of National Art Exhibition*. Seoul: Sumunseokgwan.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79). *Winners of the 28th National Art Exhibition in Architecture Section*.

- Seoul: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won, Young-jin (2018).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nd 'abstract academism' of Korean art.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35, 147-174. <https://doi.org/10.46834/jkmcah.2018.07.35.147>
- Lee, Jung-Hee (2005).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on fine arts exhibi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ts Results.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15, 37-70.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1972). *Catalog of the 20th National Art Exhibition*. Seoul: Gwangmyeong Publishing Company.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1977). *Catalog of the 25th National Art Exhibition*. Seoul: Gwangmyeong Publishing Company.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1978). (The) 27th Korean National Art Exhibition : Oriental Painting, Western Painting, Sculpture(leaflet).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 Mok, Soohyun (2011). Propaganda of 'Civilizing Mission' in the Chosen Art Exhibition. *Society and History*, 89, 85-115.
- Multilingual Dictionary of Korean Art Terminology (n.d.). Available: <https://www.gokams.or.kr/visual-art/art-terms/intro/info.asp>
- National Library of Korea (n.d.). South Korean Newspaper Archives. Available: <https://nl.go.kr/newspaper/>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1977). *Catalog of National Art Exhibition Winners: 1st-26th*. Seoul: Baronson.
- Naver (n.d.). Naver News Library. Available: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 Oh, Sang-gil ed. (2017). Rereading Korean Contemporary Art. 5, vol.3, *Critical Rethinking of National Exhibition Art*. Seoul: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Seoul.
- Purification of Korean Art - Announcement of the winners of the first National Art Exhibition (1949, November 19). *Hansung Ilbo*, 2.
- Seoul Arts Center (1990). *30 Years' Korean Calligraphy of National Art Exhibition*. Seoul: Seoul Arts Center.
- Seoul Arts Center (2007). *Korean Art of the 1970s: National and Private Art Exhibitions*.
- Song, Hyang Sun (2022). *Art Appraisal and Forgeries: The World of Art Appraisal in the Forgery Cases of Park Soo Keun, Lee Jung-seob, and Kim Whanki*. Paju: Art Books.
-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5). *Invitational Exhibition of Korean National Exhibition Artists: Artists who won the Presidential Award for National Exhibition*. Ulsan: Ulsan Culture & Arts Center.